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 국제대회 '금 3 명중'

시카고 장애인양궁선수권
김옥금 개인·혼성전 2관왕
김란숙 금 1·은 2개 획득
올해 입단 권유나도 값진 은메달

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란숙(RWO)은 개인종합 금메달, 혼성단체 은메달, 더블단체 은메달을 획득했고, 정진영(CWO)도 개인종합 동메달, 혼성단체 은메달을 획득하며 광주 장애인양궁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에 입단한 권유나(RWO)는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의 체계적인 조련과 양궁에 대한 열정이 더해지며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여자장애인 양궁 안산"으로 불리는 권유나는 타고난 신체조건과 경기 집중력이 뛰어나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기대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안형승 감독은 "김옥금 선수가 약간의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며 "세계양궁연맹 총회에서 2025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소개 발표 등 바쁜 일정으로 선수들 지도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선수들 모두 맡은바 역할을 다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시카고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선전을 펼친 광주시청 선수단.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안형승 감독, 권유나, 정진영, 김옥금, 김란숙.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해남서 근대5종 국제대회 9일부터 11개국 600명 참가

해남에서 11개국, 600여명이 참여하는 근대5종 국제대회가 열린다.
해남군은 9일부터 6일간 우슬체육공원 일원에서 '2023 해남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및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남에서 열리는 첫 국제스포츠대회로, 네덜란드 네이시 키르기스스탄 태국 카자흐스탄 일본 대만 싱가포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 선수단이 참여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근대5종연맹(AMPC)과 협의의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세계적 규모의 대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근대5종 경기는 펜싱, 수영, 육상, 사격, 승마 5개 종목을 겨루는 대회로 해남군은 우슬체육공원 내에서 승마를 제외한 전 종목을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승마경기는 경북 문경시의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다.
우슬체육공원 내 조오련 수영장장은 설계 당시부터 수영 경기가 가능한 8레인, 레인 폭 2.5m로 조성돼 국제대회 적합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체육중, 전국사격대회 금 2 등 메달 6개

이준혁 대회 2관왕

광주체육중학교 사격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등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중 사격부가 최근 전북 임실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47회 전국 중·고등학교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육중의 종합 성적은 ▲남자 중등부 10m 공기권총 단체 1위, 개인 1위 ▲남자 중등부 10m 공기소총 단체 2위, 개인 2위 ▲여자 중등부 10m 공기소총 단체 3위, 개인 3위이다.
10m 공기권총 남중부 단체전에 출전한 조은준(3학년), 김윤환(2학년), 김유준(2학년), 이준혁(2학년) 학생은 1674점을 얻어 1664점의 북대중에 10점차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이준혁 학생은 제주중앙중 김재현 학생을 2.5점차의 여유있는 점수로 따돌리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10m 공기소총 남중부 단체전에 출전한 김지환(3학년), 송건호(3학년), 박재현(3학년), 한동완(2학년) 학생은 1,836.4점을 얻어 1842.2점의 남원주중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개인전에서는 김지환 학생이 한광중 송수우 학생에게 석패해 2위에 머물렀다.
10m 공기소총 여중부에서는 이승희(3학년), 정



10m 공기권총 남중부 단체전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광주체육중학교 사격팀이 1위 단상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승희(2학년), 라현영(2학년), 김민정(2학년) 학생이 1849.1점을 얻어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정승희 학생이 단체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광주체육중 이준재 교장은 "선수들의 안전한 훈련과 현지에서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감독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 모든 출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선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세한대 배재홍 '금빛 발차기'

김운용컵태권도...배문중 동메달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태권도학과(체육부장 최경집)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2023 KUY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G1'에서 겨루기 부분 남자부 54kg급에서 배재홍(2년)이 금메달, 배문중(3년)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배재홍은 빠른 스피드와 시원한 타격감으로 화려한 경기를 펼치며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배재홍은 결승에서 세계랭킹 5위인 니탄 브리다모한(캐나다)을 만나 1라운드 12대 10으로 리드하며 앞서 나갔고, 2라운드에서 23대 19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같은 체급의 배문중도 8강에서 일본선수를 만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같은 식구 배재홍을 만나 패하면서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세한대학교 체육부장 최경집 교수는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



세한대학교 태권도팀이 메달 획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문중 선수, 최경집 교수, 배재홍 선수.

해 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와 전남도 체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세팍타크로, 전국선수권서 빛났다 금 1·동 2개 획득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에서 전남 선수단이 빛을 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전남은 더블과 쿼드, 레구 등 3개 종목에서 동선대(남자대학부) 목포공고(남자19세이하부) 나주 스포츠클럽(여자19세이하부)으로 선수단을 꾸려 출전했다.
이중 제104회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도대표로 출전하는 동선대(남자 대학부)의 활약은 남달랐

다. 쿼드종목(4인조) 4강전에서 원광대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 전국대학부 최강이라 평가받는 목원대를 2대1로 꺾고 쿼드종목(4인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팀은 전국체전 종목인 레구종목(3인조)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목포공고(남자19세이하부) 선수단도 더블종목(2인조) 8강전에서 삼고고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김천중앙고에 2대0으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올해 창단된 나주 스포츠클럽(여자19세이하부)은 첫 전국대회에 출전해 아쉽게 메달 획득

예선 탈락했던 선수의 '대반전 우승'

'러키 루저'로 본선 진출한 일본 히비노, 프라하오픈테니스 제패

일본 출신 히비노 나옴(84위)가 '러키 루저'로 본선에 오른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프라하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히비노는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린다 노스코바(52위·체코)를 2-0(6-4 6-1)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히비노는 러키 루저로 WT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역대 5번째 선수가 됐다.
이 대회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에밀리아나 아랑고(169위·콜롬비아)에게 패해 집을 쓰는 듯했던 히비노는 기존 본선 출전 명단에 있던 선수가 대회를 포기하면서 운 좋게 본선에 올랐다.
히비노는 2019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3번째 투어 단식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일본 테니스계에도 경사다. 2021년 호주오픈의 나옴이 오사카 이후 일본 여자 선수로 2년 6개월 여만에 단식 타이틀을 따냈다.
히비노는 이번 대회 복식에서도 우승해 2관왕을 달성했다.
옥사나 칼리시니코바(조지아)와 짝을 이룬 히비노는 복식 결승에서 킨 글리슨(미국)-엘릭산 르수미야(프랑스) 조를 2-1(6-7(9)-7-5 10-3)로 물리쳤다.
히비노는 현재 일본 여자 선수 중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다.
일본 여자 테니스 간판이던 오사카는 우울증 등으로 결장이 길어져 592위까지 하락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2관	비공식작전
3관	엘리멘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4관	밀수
5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신디어스: 발간 문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9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7관 싸바카를	밀수
8관 싸바카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더 문, 여름날 우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